



LG U+출범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가격 전쟁에 돌입했다. 저마다 새로운 결합상품 요금제를 내놓고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사진_신영근 기자 / 사진제공_ LG텔레콤, SK텔레콤

이제는 ‘가족 통합 요금제’

이동통신사들 몸집 불리기 점입가경

스마트폰 대전(大戰) 이어 가격 경쟁 재점화

‘LG U+’ 출범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가격 전쟁에 돌입했다. 저마다 새로운 결합상품 요금제를 앞 다퉈 내놓고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한여름이 더욱 뜨겁기만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해진 서비스를 종전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 좋지만 자칫 업계의 ‘제살 깎아먹기’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통신 환경이 질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이동통신업계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LG U+’ 출범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가격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저마다 새로운 결합상품 요금제를 앞 다퉈 내놓고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한여름이 더욱 뜨겁기만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해진 서비스를 종전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 좋지만 자칫 업계의 ‘제살 깎아먹기’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통신 환경이 질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지 않고 저마다 같은 장소에 중계기와 기지국을 중복 설치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더러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어깨 위에 얹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합KT 출범으로 이통업계의 전운이 싹트더니 LG텔레콤의 계열사 합병과 결합상품 출시로 전장이 넓어졌다. 이어 2위 기업 KT가 아이폰으로 아연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자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갤럭시S를 내놓고 일대 반격에 나섰다. 여기에 통신요금 할인 경쟁까지 가세해 이통업계는 바야흐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의 대혈투로 빨려들고 있다. LG텔레콤이 7월1일 ‘LG U+(유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파격적인 가족 통합요금제로 선수를 치자 KT 역시 비슷한 요금제로 맞불을 놓았고 한 발 늦은 SK텔레콤도 7월14일 가족 단위 유무선 결합상품을 들고 나왔다. 이통 3사의 새 요금제는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가입한 뒤 허용된 통화량을 가족끼리 나눠 쓰면서 유선 상품을 무료 수준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3위 기업의 대반격, LG U+ ‘온국민은 yo’

가족통합요금제 경쟁의 불을 댕긴 것은 LG U+다.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인터넷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등을 하나로 묶고 요금 부담은 대폭 줄인 혁신적 요금제 ‘온국민은 yo’를 선보였다. 가족 수에 따라 9만 원(둘이 yo)/12만 원(셋이 yo)/15만 원(다섯이 yo) 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각각 16만 원/24만 원/30만 원 어치까지의 서비스를 추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가령 두 대의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를 사용하면서 월 평균 16만 원의 통신비를 내는 2

‘온국민은 yo’ 요금제 (7월15일 기준)

요금제	yo안심구간 (무료혜택제공)	실제납부 금액	최대 할인율	구성가능상품		yoyo포인트적립 (기기변경 포인트)
				이동전화	유선상품	
둘이yo	9~16만 원	9만 원	44%	1~2인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잔여분의 5% (가입기간 1년 이내)
셋이yo	12~24만 원	12만 원	50%	1~3인	중 원하는 대로 선택	잔여분의 10% (가입기간 1년 이상)
다섯이yo	15~30만 원	15만 원	50%	1~5인		

* 휴대전화는 음성/문자/데이터 모두 포함. 음성은 18원/10초, 문자 20원/건
* 인터넷전화, IPTV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은 필수 가입
* 인터넷전화 가입 시 장비임대료 1천 원, IPTV 가입 시 장비 임대료 2천 원은 별도 적용

인 가족이 새로운 요금제로 바꾸면 월 9만 원만으로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인 가족은 최대 44%, 3인 가족부터는 50%를 각각 할인받는 셈이다.

상한을 초과할 경우 더 쓴 만큼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6만 원 상한에 17만 원어치를 사용했다면 초과한 1만 원이 합산된 10만 원이 청구된다. 만일 약정한 금액 밑으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부과된다. 무료 사용량 구간 내에서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휴대전화 기기 변경 적립금으로 전환된다. 9만 원 요금제에서 실제 사용량이 딱 9만 원이면 미사용한 7만 원 부분이 yoyo포인트(최대 10%)로 적립된다. 약정 금액 밑으로 사용할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LG U+는 공식 사명 변경을 기해 4세대(4G) 이동통신망인 LTE(Long Term Evolution)전국망 조기 도입과 공용 와이파이가 1만1천 개 연내 증설 계획 등을 담은 비전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명 ‘U+’는 언제 어디서든 구현 가능하다는 의미의 ‘유비쿼터스’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를 조합한 것이다. 이상철 부회장은 “LG U+로의 새로운 출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가치를 제공하는 ‘탈통신’으로의 출항 선언”이라고 설명하고 “U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잃어 버린 IT 강국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무선 융합(FMC: Fixed Mobile Convergence)’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통합KT 선언이나 SK텔레콤이 내세운 ‘산업 생산성 증대(IPE)’와 비슷한 맥락이다.

스마트폰 리더, 통합 KT ‘올레(olleh) 통’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시장의 선도 기업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KT는 유무선 가구 단위 통합 요금제 ‘올레통’을 내놓으며 LG U+의 신요금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 7월1일 오전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LG U+ '탈통신' 비전 선포식에서 이상철 부회장이 사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_서명곤 기자



▶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열린 KT-KTF 합병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석재(우) KT 회장과 서유열 KT홍고객부문 사장이 신입사원들의 아이폰 연주에 박수를 답하고 있다. 사진_박지호 기자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7월14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출시 및 mVoIP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_배정현 인턴기자

올레통은 지난 4월 출시한 유선 중심 결합상품 '쿱통'과 6월에 나온 무선 중심 결합상품 '쇼통'을 합친 요금제다. 이동전화 사용량에 따라 세 가지 상품(10만원/13만원/16만원)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집전화와 인터넷, IPTV의 유선 부분을 4만2천 원에 정액으로 묶고 그 동안 이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했던 휴대전화 기본요금제를 없앤 게 특징이다. 휴대전화 5대를 쓰는 가족이 기본요금 6만원(1만2천 원씩)에 총 통화료가 6만원이라면 각각 단품으로 가입한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IPTV를 포함해 모두 20만1천200원을 내야 하지만 올레통에 가입하면 10만 원으로 모든 해결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50%를 넘는다.

추가 혜택도 있다. 가족 간의 통화는 무제한 무료(가족 무제한 옵션)이고 타사 휴대전화로 가는 것을 제외한 유선 통화도 무제한 무료다. 타사 휴대전화에 가는 통화도 100분까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중국 등)로 가는 국제전화요금을 집전화로는 분당 50원, 휴대전화는 10초당 18원의 파격적 할인이 제공된다. TV도 IPTV와 위성방송(쿱TV스카이라이프 이코노미)을 모두 즐길 수 있다. KT 홈고객 부문 서유열 사장은

올레 통 요금제 (7월15일 기준)

상품	기존 요금제		올레 통
	기본료	통화료(예시)	
인터넷	3만6천 원	-	4만2천 원 6만5천 원 10만 원(7천 원 추가할인)
집전화	5천200원	1만 원	
IPTV	2만 원	-	
휴대전화(5회선)	6만 원	6만 원	
합계	20만1천200 원		

- * 무료 통화대상은 시내/시외, 인터넷전화, KT 휴대전화에 거는 국내 음성통화에 한함
- * KT를 제외한 타사 이동전화에 거는 통화는 100분까지만 무료로 제공
- * 모뎀 및 STB 등 장비 임대료는 별도 부과

은 "기존 통신상품에 대한 요금 할인 이외에 추가 혜택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내년 3월까지 전국 84개 시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로 변환해 주는 '에그'를 버스과 지하철 등에 설치해 이동 중에도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와이파이 존 증설은 연말까지 목표였던 2만7천 곳이 최근에 조기 달성됐다.

SK텔레콤 "유선 상품은 무료"... 1위 수성 의지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 빅뱅'을 선언했다. 7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무선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와 휴대전화 회선 수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상품을 무료 수준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8월 중 내놓는다. 휴대전화 2회선은 집전화 200분 무료, 3회선은 초고속인터넷 무료, 4회선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무료, 5회선은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IPTV(스카이라이프 포함)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휴대전화시장의 1위 수성을 위해 유선 상품은 과감하게 덤으로 주겠다는 전략이다.

휴대전화요금제 선택에는 제한이 없다. 표준요금 1만2천 원을 사용해도 되고 올인원 요금제도 무방하다. 신규 가입자는 기존 기본료의 10~50% 할인 및 가족 간 무료 통화 상품인 '온가족 할인' 제도나 새로운 요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인원55(기본료 5만5천 원)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는 3G망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G망의 비싼 요금 때문에 무선인터넷 사용에 부담을 느끼던 가입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LG U+의 4G LTE 조기 도입 발표에 맞서 내년 서울 지역 LTE 상용화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로 서비스를 확대한 뒤 2013년 전국망을 구축한

다는 예정이다.

정만원 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합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도매단가로 유선을 사와 재판매하는 개념이므로 SK브로드밴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무선 부문에서 정상 요금을 받으면서 유선 부문의 줄어드는 수익은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무료 제공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SK텔레콤에 통보한 것으로 지난 7월18일 확인돼 새로운 요금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방송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SK텔레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되자 SK텔레콤은 제출하려 했던 인가 신청서를 보류하고 방통위 측과 계속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mVoIP와 무선인터넷망

휴대전화를 이용해 와이파이망 내에서 인터넷 전화를 걸 수 있는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도 관심거리다. mVoIP는 KT가 지난해 유무선 융합(FMC) 스마트폰 '쇼옴니아'를 내놓으며 와이파이 지역에 한해 도입했지만 최근 세계 1위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가 와이파이와 함께 3G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LG U+의 신요금제에 포함된 부가 서비스 'OZ 070'은 일반 통신망에서는 휴대전화로 쓰고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인터넷 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mVoIP다. 기존의 휴대전화요금에 2천 원만 추가하면 된다. 일반 통신망 지역에서는 요금이 10초당 18원이지만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유선전화에 걸면 3분에 38원, 휴대전화에 걸면 10초당 11.7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즉 집전화를 휴대전화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셈이다.

LG U+ OZ 070 요금제 (7월15일 기준)

상품명	개요	기본료	무료 통화량	유선 38/3분 무선 11.7원/10초 OZ 070 간 무료통화
OZ 070 표준	휴대전화 기본료에 추가	2천 원	-	
OZ 070 35	휴대전화 요금제	3만5천 원	205분 상당	
OZ 070 45	휴대전화 요금제	4만5천 원	297분 상당	
OZ 070 55	휴대전화 요금제	5만5천 원	390분 상당	
OZ 070 홈팩	집전화	5천200 원	739분 상당	



SK텔레콤이 데이터 트래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가격 경쟁을 포함한 통신사 간 네트워크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사진_임현정 기자

KT는 지난 6월 스카이프가 3G망을 지원하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실제로 스카이프를 차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LG U+와 SK텔레콤이 mVoIP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아이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KT 070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SK텔레콤은 그 동안 투자유인을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꺼려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전격적으로 mVoIP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인원 55 요금제 가입자는 200MB의 데이터가 mVoIP로 제공돼 스카이프 등에 가입하면 약 16시간 동안 인터넷 전화가 가능하다. 3G망 무료 개방이나 mVoIP 허용은 그동안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강력히 원하던 것이었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선뜻 도입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1위 사업자가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KT의 아이폰 출시로 빼앗긴 무선인터넷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요금제별 데이터 및 mVoIP 허용량 (7월15일 기준)

요금제	월정액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mVoIP 허용데이터	mVoIP 통화가능시간
올인원35	3만5천 원	150분	100MB	무제한	없음
올인원45	4만5천 원	200분	500MB		
올인원55	5만5천 원	300분	200MB		
올인원65	6만5천 원	400분	300MB		
올인원80	8만5천 원	600분	500MB		
올인원95	9만5천 원	1천 분	700MB		
넘버원	11만 원	1천100분			약 3천500분

하지만 LTE의 전국 상용화가 2013년으로 예정돼 있어 데이터 무제한 사용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그때까지 3G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기관은 앞으로 4년 내에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40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실제로 미국의 AT&T는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하며 월 30달러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정액제를 내놓았지만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자 지난 6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월 25달러로 2GB까지 쓸 수 있는 요금제로 바꿨다.

SK텔레콤은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4G 이외에도 와이파이가 3G망 증설에 나설 계획이다. KT와 LG에 상대적으로 뒤진 와이파이가 준 구축은 연초 목표인 1만 개를 올려 잡아 연말까지 1만5천 개로 늘린다. 또 신촌과 홍대 등 주요 대학가에 ‘T와이파이 스트리트’를 추가하고 버스과 지하철 등 5천 개소에도 ‘모바일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추가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오는 10월부터 획기적으로 증설된 3G망을 확대 제공하고 7~8월쯤에는 수도권에 HSPA+ 네트워크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3G망 HSDPA는 업로드 최대 384Kbps, 다운로드 최대 14.4Mbps이지만 HSPA+는 이론적으로 업로드 최대 5.76Mbps, 다운로드 최대 21M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요금제별 1일 기준 사용량을 정해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가령 올인원55 요금제 가입자가 1일 기준 사용량인 70MB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품질(QoS) 관리를 위해 주문형비디오(VOD) 등 일부 서비스가 차단된다. 올인원35나 올인원45 가입자에게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부장은 “상위 2%가 데이터의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가입자는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SK텔레콤이 데이터 트래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가격 경쟁을 포함한 통신사 간 네트워크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세상 사람들의 라이브 뉴스채널~ 연합뉴스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기사를 포함, 그래픽, 사진, 영상뉴스까지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국내외 미디어에 서비스하는 연합뉴스는 2004년부터 영상뉴스 서비스를 시작해 60여명의 전문인력과 취재기자, 특파원 등이 영상뉴스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9시간 ‘연합 라이브’ 생방송 뉴스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영상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연합뉴스 영상뉴스는 매일 09:00~18:00에 네이버 첫 화면의 연합뉴스 속보창이나 연합뉴스 홈페이지(www.yna.co.kr)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 네트워크	국내 최대 취재인력 보유 (560여명) 해외 35개국 46개 지역 60여명의 특파원 보유 6개 외국어 취재 보도 시스템	150여명의 지역 취재망 해외 동포 언론 네트워크 북한 뉴스 전문 보도망
------------------------	--	--

